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2주일

제36권 30호(다해) 2016년 6월 19일

[묵상]



<예수님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게 있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철저히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예수님이 들어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닌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인품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한 말을 믿고,

당신의 약속을 믿고,

당신의 요구도 수락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분의 요구도 받아들여야 한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준택 (생)박지영 레지나, 김지수보나 & 김지예크리스티나, 오창근 베드로 사제
주일 학생 미사	(연) (생) 이정훈안셀모 & 이회운도미니카 가정
주일 낮 미사	(연) 이정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김중선 올리아, 김상진 토마스, 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현시영 요셉, 고준희 제임스, 김홍달 요셉, 연옥영훈, 오중순 (생) 박정미 클라라, 김여희 마리아나, 백지자 세레나 & 정규숙 안나, 황윤재 베드로 가정, 엄주현 올리안나, 캐티 로, 임 라파엘라 수산나 가정, 박인수 프란치스코, 티파니 권 요세피나, 김인자 요세피나, 남해나 분다,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즈카르야 (Zechariah) 12, 10 - 11; 13, 1

화답송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 이 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낮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나이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제 2독서 갈라티아서 (Galatians) 3, 26-29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루카 (Luke) 9, 18-24

영성제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2. 문호 개방기의 교회(1882~1911년)

2-3. 신앙생활의 전개

교회는 한글 활자를 비치하고 일본의 나가사키에 설치된 성서 활판소를 1886년 서울로 이전해서 교회 서적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조선 교회는 저렴한 활판본 책자를 간행하게 되었다. 이때 「천주성교 십이단」, 「백문답」 등 기도서와 교리서가 간행 보급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샤를 달레의 「조선천주교회사」(1874년)가 간행되었고, 조선에 파견된 프랑스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한불자전」(韓佛字典, 1880년), 「한어문전」(韓語文典, 1881년) 등이 간행되었다. 이 책자들의 간행으로 유럽 여러 나라가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 식민지 시대의 교회(1910~1945년)

3-1. 식민 통치와 선교 정책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전 민족적 저항에도 조선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상황은 민족이 독립하는 1945년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에 일제는 한반도에서 식민 정책을 집행해 나갔다. 그들은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종교에 대한 교묘한 규제책을 시행하였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신자 수가 73,517명이었고 성직자는 62명(외국인 선교사 47명, 조선인 신부 15명)이었다. 특히 조선교구의 교구장을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뒤텔 주교가 맡고 있었다. 그 밖의 선교사들도 교회의 지도층을 이루어 조선 교회를 직접 관장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였다.

한일 합방 당시 조선에 나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은 광대한 식민지를 경영하던 제국주의 국가 출신이다. 따라서 그들은 제국주의적 불평등 조약의 부당성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식민지 지배 권력을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를 정당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교회는 식민지적 사회 구조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 교회가 식민지 사회에서 합법적 기구로 인정되는 한, 식민지 통치의 기초를 부인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것은 불가하였다.

<계속>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00	200	200
봉헌	261	261	272
성체	283	283	283
파견	192	아빠의 청춘	192

동상이몽(同床異夢)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예언자들 중의 한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석가모니, 공자, 단군, 위대한 성현 중의 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든, 엘리야이든, 옛 예언자 중에 한 분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군중들이었지요. 절실하게 그분을 믿을 필요도 없었고, 구세주라고까지 고백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올리브 가지를 꺾어서 환대했고, 레드 카펫까지는 아닐지라도, 걸음을 벗어 용숭하게 맞이하기도 했지만, 정작 본시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는, 쓰레기 버리듯, 그렇게 그분을 버렸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지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주실 수 있으신 분,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 구세주라고. 그러나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힘세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였을 뿐,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수난을 겪는 그리스도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물음에 “하느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대답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천애인

(敬天愛人)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밥으로 내어놓아야 한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저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라는 말로 오만가지 불평, 불만을 쏟아 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자신들의 삶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부귀영화를 과감하게 버리게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 걸게 하는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투덜거리며 떠났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지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중이떠중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지요.

◆이균태 안드레아 신부 / 복산성당 주임

성인 말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통 차지하려 하십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리십시오.

- 가경자 테클라 메를로 -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정 레나타	정인옥 아오스딩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요셉회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 ◆ 고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Happy Father's Day!

● 아버지 날을 맞아 백삼위 공동체의 모든 아버지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수고하시는 본당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본당에서 점심을 제공하며 토런스 북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6월29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 축일로 오창근 베드로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요셉회 정기 총회 공고

- 일시 : 6월19일(오늘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장
- 안건 : 신입회장 선출 및 회칙, 일년행사계획 65세 이상 누구나 참석 환영합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주일학교 방학기간 주일 미사 조정 안내

주일학교 방학기간에 미국 신부님들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성인 미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일미사는 아침 7:30과 11:00 미사만 있습니다.

● 실시기간 6/26 주일부터 8/28 주일까지

- ◆ 우리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어를 꼭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백삼위 한국학교 2016-17년도 1학기 등록 접수
 - 6월 19일까지 접수시 20% 할인혜택
2. 2015-16년도 한국학교 종업식
 - 장소 : 강당
 - 일시 : 6월 19일 오후 1시30분 ~ 3시
3. 백삼위 한국학교 여름 수학 교실
 - 일시 : 6월 25일 ~ 8월 7일 오전10시~오후12시
 - 대상 : 현재 A (5,6학년), B (7,8학년)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배론 청년회원을 모집합니다.

대학생부터 미혼남녀 청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토요일 저녁 미사후에 회합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유보나 보나 ☎(310)755-9837

◆강요셉신부님의 영성피정 CD를 사전주문 받아 제작합니다.

- 가격: \$10 (1 set 6개 강의), 주문마감 7월4일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 (310)780-0369

◆ 주일학교 견진반 1,2 등록접수

- 대상: 9학년이상 미 견진자
- 시작 : 9월부터 (자세한 일정은 추후공지)
- 담당교사: 서정우, 제니퍼 현, 써니황
- 등록원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주보 광고에 협찬해 주신 광고주들께 감사 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 주십시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19일(주일) : *토복 1,2반(홍합미역국 \$ 0)
* 주일학교 (4,7학년: 피자)
- 6월26일(주일) : *하버/카슨(미역국: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김광자 김교복 김병태 김상근 김양근 김 옥 김원호 김정희 김 준 김현숙 노혜숙 박광자 박영희 박혜정 손영희 송기철 안태갑 오신재 원건희 윤화경 이귀분 이민상 이숙화 이은경 이인석 이일길 이정분 정경자 정규숙 정정현 조화숙 최기남 최상만 최수복 홍인표 황철수 한길선례	성전헌금	강인모 김광자 김교복 김양근 김정희 김 준 김현숙 노혜숙 박광자 안태갑 원건희 윤화경 이귀분 이민상 이숙화 이인석 이일길 이정분 정정자 정규숙 정정현 조화숙 최기남 최상만 한길선례
주일미사헌금 : \$2,513	합계: \$3,530		합계 : \$1,750
			영성 피정 파견미사헌금 : \$ 548

◆남가주 여성 제 41차 꾸르실료 교육

- 수강생 : 김인자 요세피나
- 일정 : 6월 23일(목) ~26일 (주일)
- 장소 : 아씨시 피정의집
- 환영식 : 26일 (주일) 4시30분 PM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전복레 데레사 ☎(909)709-3181

◆남가주 남성제 41차 꾸르실료 교육

- 일정 : 7월 14일(목) ~17일 (주일)
- 신청마감 : 7월 3일(주일)
- 문의 : 전복레 데레사 ☎(909)709-3181

◆제 29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일시: 7월 30일(토요일)-31일(일요일)
- 장소: 이스트 엘에이 칼리지
- 강사: 손 광배 도미니코 신부(인천교구 성령지도 신부)
김 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팔로티회)
신 상현 야고보 수사(꽃동네)
- 참가비:\$25(예약시 \$20)
* 도시락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여 주십시오.*
- 문의: 각 본당 성령기도회장 및 봉사회 ☎(714)343-4771

남가주 소식

◆성서 사십주간 신약성경 개강

- 일시 : 2016.6.21~2016.12.13(7.26~8.23방학)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12시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첩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장소 :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CBLM)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 521-1345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일시 : 6월18일(토요일)
- 미사 : 11시 김중기 요셉 신부님, 식사 : 정오
- 장소 : 작은예수회 LA분원 (올림픽과 실로암 약국이 있는
아라파호 골목길)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제 22차 남가주 선택주말(Choice Weekend)

- 대상 : 24~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남녀
- 일시 : 8월 12일(금) ~14일(주일)오후
- 참가비 : \$300(반액은 본당지원 함)
- 신청마감 : 6월 25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신호진 구네군다(213) 503-7909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순자 비비안나 6/9(목)오후4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6/11(토)오후6시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6/17(금)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대우 비오 6/25(토)오후5시
	2	윤정옥 실비아 909-557-7490	오상준 토마스 6/11(토)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우영희 엘리사벳 6/17(금)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방지거 6/17(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6/14(화)오전11시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김유미 사비나 6/18(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미열 클라라 6/19(일)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749-3151 6/11(토)오후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송재훈 필립보,377-4219 6/10(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정판영 레오 6/17(금)오후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 루시아 562-355-0499 6/4(토) 오후6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4(화) 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고우십니다

오래된 노송이었다. 신틱으로 물든 힘찬 담쟁이 넝쿨이 아름답디 소나무 등지를 휘감아 운치를 더한다. 우이동 수도원 입구에 들어서자 울창한 수목들이 눈웃음을 보내온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마저 세속의 기운을 멀리한 수도원의 정적을 불러온다.

검정 수단이 발목까지 내려온 젊은 수도자 한 분이 웃으며 손을 내민다. '고우십니다.' 그 인사말이 참 정겹다. 여인이라면, 뉘라서 곱다는 말을 멀리하고 싶을까. 붉은 적송을 감싼 저 빛깔 고운 담쟁이 잎새처럼 우리 또한 곱게 황혼을 맞이하라고, 바람이 소리 없는 말을 전해 온다.

수도원의 새벽은 싸늘하다.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두런두런 눈인사를 나누며 북한산 올레길을 걷기 위해 모여들었다.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병. 소박한 아침으로는 충분하다. 침묵의 도보는 내 안의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 이슬 머금은 보랏빛 구절초 몇 송이가 아침 인사를 전해온다. 올레길에서 돌아와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오감으로 스미는 행복의 기운을 느낀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한 잔의 커피가 돼 준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를 위해서만 달려온 시간의 궤적들이 마음 안쪽에 고인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는 가끔씩 수도원을 찾는다. 하느님이 존재하는 집. 어딘들 주님 없는 곳이 있으랴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도원이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느님이 계심을 믿을 수가 있다. 고귀한 일생을 주님 위해 바친 수도자들의 헌신적인 삶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아들들. 참으로 고우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 위해 전 생애를 바친 그분들의 삶이 아닐까.

곱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참하고 추하지 않다는 뜻이다. 가정을 살리는 세 가지 씨앗은 말씨, 맵시, 마음씨라고 한다. 온화한 말씨와 단아한 맵시,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고운 마음씨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함께 살리는 덕목이다.

사람의 앞모양은 가꿀 수 있으나 뒤태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 가꿀 수 있는 앞모습은 교양, 인격, 품위 등이겠으나 바꿀 수 없는 뒷모습은 교만, 이기심, 술수 등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고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끊임없는 자기수양이 필요할 것이다.

사망을 돌아보아도 초록 물이 뚝뚝 돋는 성하의 계절. 내면의 아름다움과 그분 보시기에 고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끔씩은 수도원을 찾아 내면을 가꾸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 김양희 레지나 / 수필가

[교리상식]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 첫째, 물리적으로 미사참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당을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야 하거나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할 때에 해당됩니다. 이 규정은 주일에 배나 비행기를 타고 있는 상태와 성당이 없는 섬이나 시골에서 지낼 경우가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장소가 미사참례를 불가능하도록 할 때입니다. 둘째, 몸이 불편해서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몸살, 감기가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면 부득이한 경우겠지요. 그렇지만 생업으로 인해서 주일을 성수하기 어려운 운전기사, 노동자와 농부 혹은 직장인의 회사사정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주일 미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주어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미사에 참례함으로 얻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며 하늘나라의 생활을 앞당겨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모여서 무신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표양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단장을 줄이는 희생과 시간을 쪼개 달려가는 걸음을 하느님께서는 기꺼워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지요. 때문에 미사에 참례하는 일은 '잠깐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향한 '귀가'입니다. 집을 두고 어디에 계시려 하십니까?

◆ 가톨릭 부산 주보 / 소곤소곤

꾸르실리스따! 너는 누구냐?

꾸르실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전체를 펼쳐 놓은 전시장입니다. 기도, 묵상, 피정, 성사, 공부, 활동, 발표, 미사, 성체조배, 성가, 노래, 전례회합, 성김, 나눔, 운동, 휴식 등을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것(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도직 활동을 함으로써 은총생활을 지속하는 것)과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이상, 순종, 사랑의 정신의 증진과 신심, 공부, 사도직 활동)을 하면서 은총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생활의 진수를 생활하고 회심을 통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은총생활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꾸르실료운동은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것"을 항구히 생활함으로써 스스로 복음화되어 환경복음화 사도직에 헌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소와 기능들을 요구합니다. 정신면에서는 이상, 순종, 사랑의 정신을 견지하게 하고, 실천면에서는 신심, 공부, 사도직 활동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 이종인 디오니시오 / 교구 꾸르실료 주간

거인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인 다윗을 아시죠? 그가 소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도 군대와 함께 그들에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산마루에 모여 있었고 맞은편에 모여 있는 필리스티아 병사들은 날카로운 철했로 만든 창들로 무장하여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병사들 중 거인 투사 한 명이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무엇이냐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7,1-11

골리앗이 소리를 쳐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반응이 없자, 그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다시 나타난 그는 더욱 더 교만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고, 이런 일이 사십여 일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간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병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다윗의 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뭐라고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7,12-28

다윗이 한 말이 사울 임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어린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이 계속 청하자 사울은 허락을 하고,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다윗은 무겁다며 갑옷을 벗어 버리고 골리앗과 일전을 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7,30-58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였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영웅으로 선언했고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총 40년 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느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고, 종교적으로 나라를 단합시켰으며, 그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골리앗은 방심하여 소년 다윗을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오늘 ()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1사무17,46)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사람, 임금님의 종()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사무 17,58)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이토록 다양한 맛

갓 갈아낸 커피콩에는 800가지의 맛과 풍미가 있다지요.

이토록 작은 콩에도 저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가 본 한두 모습으로

쌀쌀맞다, 음흉하다, 차갑다, 무뚝뚝하다, 까칠하다, 영악하다 합니다.

겨우 네 덧가지 내가 아는 커피 맛처럼

내 입맛대로만 사람을 봅니다.

참 볼품없는 입맛입니다.

-이영 아네스-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 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HANURI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5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모지매매
모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b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몬*미리암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 Bl. #1110 LA (에퀴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앞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미-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릭(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B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